

Chisso, 한국에서 LCD 소재 생산

전략시장 기반구축 목적 ... 배향막·보호막 제조설비에 10억엔 투자

대규모 액정 생산기업인 일본 Chisso가 액정 디스플레이(LCD)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타이완과 한국에 액정 및 관련재료의 제조설비를 건설할 방침이다.

타이완에서는 TFT(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Blend 설비와 기술 서비스 거점을 개설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배향막이나 보호막 등 관련재료를 생산해 LCD 생산기업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입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결정해 건설에 착수함으로써 2005년 하반기에 가동할 계획이다.

Chisso는 양국의 시장확대에 대응해 영업·판매거점을 정비해 왔으나 전략시장에서 서둘러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조부터 일관된 생산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Chisso는 독일 Merck 다음으로 규모가 큰 액정 생산기업으로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제조부터 기술개발·기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업기반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LCD 시장은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타이완에서 급격히 확대돼 중기적으로 한국과 타이완이 LCD의 전략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Chisso는 시장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한국, 타이완에 판매·마케팅 거점을 개설해 사업전개 강화에 주력해 왔으며 2004년 투자계획은 전략시장 전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타이완에서는 TFT 액정 Blend 설비를 건설해 LCD 생산기업 공급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현재 台南 등 후보지의 최종 물색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곧 투자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서는 중기적으로 수요기업에의 기술서비스 기능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초기투자는 20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배향막이나 보호막 등 LCD 관련재료의 제조설비를 건설할 계획인데 곧 입지를 선정해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2005년 후반에 완공할 예정이다.

LCD시장의 확대에 따라 관련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계획중인 증설분을 한국에서 현지화하기로 결정했으며 투자액은 10억엔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

Chisso는 2003년 중반 자회사인 Sun Electronics을 통해 한국의 C Cube Digital에 LCD 드라이버 실장기술인 TCP(Tape Career Package) 제조기술을 공여하고 자본 참여하는 등 액정사업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액정 생산(Blend)도 시야에 두고 있다.

Chisso는 액정이나 유기EL, 관련재료를 포함해 표시재료 종합화에 대처하는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전략전개를 서두르고 타이완, 한국을 포함한 3대 시장에서 기반을 굳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8/27>